

레인보우

レインボー
Rainb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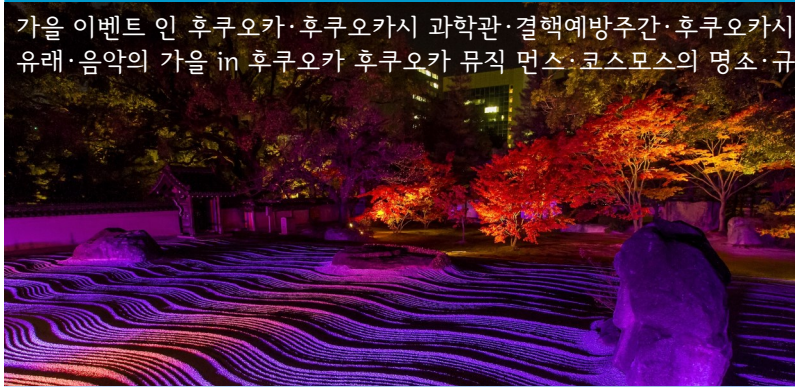
2018년
9·10 월호
No. 132

(공재)후쿠오카시 국제 교류재단 우)812-0025 福岡市博多区店屋町4-1 福岡市国際会館 1階
후쿠오카시 국제회관 1층 TEL:092-262-1799 URL:www.rainbowfia.or.jp



公益財団法人
福岡よかトピア国際交流財団
Fukuoka City International Foundation

가을 이벤트 인 후쿠오카·후쿠오카시 과학관·결핵예방주간·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니시야마 선생님 건강칼럼·'○○의 가을'의 유래·음악의 가을 in 후쿠오카 후쿠오카 뮤직 먼스·코스모스의 명소·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메이지 150년 기념 오후라 컬렉션



사진제공: 후쿠오카시

가을 EVENT in Fukuoka



사진제공: 우미노나카미치 해변공원



후쿠오카의 가을은 이벤트가 가득합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앞으로 다가올 행락 시즌에, 꽃과 음악, 문화를 만나러 밖으로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레인보우에서는 가 볼 만한 장소와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호조야 (放生会) 9월 12일(수)~18일(화)

하카타 3대 축제 중 하나이자 규슈 최고의 가을 축제인 '호조야'가 올해도 하코자키구 신사에서 개최됩니다. 천 년 이상 이어온 이 축제는 만물의 생명에 자비를 베풀고 살생을 금하며 가을의 결실에 감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약 1km의 참배 길에는 약 500개의 노점이 늘어선 명물인 '햇생강 가게'와 '귀신의 집', '미세모노고야(국예쇼)' 등도 개설했습니다.

시간: 정오부터 22시 무렵까지(각 행사에 따라 다름)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하코자키 1-22-1

◆스미요시 신사 레이타이사이 (住吉神社例大祭)

10월12일(금)~14일(일) 레이타이사이에는 오곡풍양을 기원하는 가을 축제입니다. 초등학교가 벌이는 소년 스모와 유적마(流鏑馬) 공연을 펼쳐 신에게 바치고 전통 의상을 입은 유아들

의 행렬도 펼쳐집니다. 후쿠오카에서 유적마를 볼 수 있는 많지 않은 기회입니다. 스미요시 신사는 스모와 오랜 관련이 있는 신사이기도 해서 '고대 스모선수 동상'이 있습니다. 11월의 규슈 스모대회에 앞서 요코즈나가 스모판에 등장하는 의식도 거행됩니다.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스미요시 3-1-51

◆아시아 포커스 9월 14일(금)~23일(일)

올해도 후쿠오카에서 아시아의 신작 영화와 일본 미공개 작품을 볼 기회가 찾아옵니다! 올해는 특별상영으로 '필리핀 특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focus-on-asia.com/>
◎캐널시티 하카타 유나이티드 시네마 캐널시티13

◆하카타 구 시가지 라이트업 워크 2018 천년황야

(博多旧市街地ライトアップウォーク2018 千年煌夜)

10월 31일(수)~11월 4일(일) 17:30~21:00

올해부터 새롭게 명칭이 바뀌고 라이트업 워크가 개최됩니다. 매년 대성황을 이루는 이 행사는 절, 신사, 정원에 조명을 비춰 낮과는 다른 환상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http://www.hakata-light.jp/>

4 페이지에 계속 ...▶

일본의 국경일

9월 17일(월) 경로의 날

9월 23일(일) 추분

10월 8일(월) 체육의 날

敬老の日

秋分の日

体育の日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 개관일시
평일 8:45~18:00

후쿠오카시 과학관

작년 10월에 개관한 후쿠오카시 과학관에 가 보셨나요? 비가 오는 곳은 날에도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6층에는 플라네타륨이 있습니다. 최신 광학식 투영기와 디지털 투영기를 결합한 돔 시어터에서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계절 한정 프로그램, 아로마 향을 즐길 수 있는 시설, 입체음향 시스템을 사용한 콘서트 등도 있어 지금까지의 플라네타륨과는 전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등반이 각도조절 의자도 준비되어 있어 편안한 공간에서 실제로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5층 기본전시실에는 '우주', '환경', '생활', '생명', '미래'의 다섯 가지 구역으로 이루어진 체험형 전시, 매일 실시되는 사이언스 쇼와 오픈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종류의 로봇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과학에 관한 다양한 서적이 갖춰진 도서관에, 정보검색이 가능한 과학 내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실험실과 교류실이 있으며 이벤트가 없는 날에는 교류실이 개방되

므로 자습도 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장난감 등이 구비된 '가족 광장'도 있습니다.

3층에는 종합안내 및 매표소, 기획전시실에 제휴광장이 있습니다.

제휴광장에서는 지역 기업과 대학 등이 기업마다 보유한 기술 등을 알 수 있는 체험형 전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휴광장은 입장료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주오구 롯폰마쓰 4-2-1

개관시간: 9:30 ~ 21:30

5층 기본전시실: 9:30 ~ 18:00

돔시어터: 스케줄에 따라

휴관일: 매주 화요일 및 연말연시

5층 기본전시실 입장료: 어른 500엔

고등학생 300엔 초,중학생 200엔



9월 24일~30일은 결핵 예방 주간입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에는 약 1.8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가 발생합니다. 결핵은 젊은 세대도 걸리는 '현대 질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원치료만으로 고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감염시키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총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미 결핵에 걸렸으며 결핵 고(高)만연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입니다.

결핵의 증상은 기침, 가래, 발열, 권태감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기침 등이 오랫동안(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서둘러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십시오.

*후쿠오카시에서는 후쿠오카 시내 소재 일본어 교육시설의 유학생 및 유학생의 가족 등, 일본에 입국한 지 5년을 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이면서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무료로 흉부 X선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기회에 검진을 꼭 받아보십시오. 예약이 필요하므로 아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일시: 2018년 9월 3일(월)~28일(금) (토/일/국경일 제외)

검진시간: 오후 1:30~3:00

장소: 후쿠오카 결핵예방센터 (후쿠오카시 주오구 다이묘 2-4-7)

검진항목: 흉부 X선검사 비용: 무료 (선착 200명)

예약 신청: 후쿠오카 결핵예방센터

Tel: 092-761-5466

Fax: 092-761-5467



실보아와
다스케아잉꼬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 www.rainbowfia.or.jp

후쿠오카시 국제회관 (Fukuoka City International Center)

☎하카타구 덴야마치 4-1 레인센 하프빌딩

TEL : 092-262-1799 FAX : 092-262-2700



1층	사무실	재단 사무소, 미팅/카운슬링실, 정보 카운터, 도서 열람 및 대출	평일 8:45~18:00
4층	국제교류 플로어	렌탈 회의실, 휴게공간, 각종 팸플릿 코너	매일 8:45~21:00

일본어 이야기 살롱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9월 6일, 20일/10월 4일, 18일 14:00 ~ 17:00

☎후쿠오카시 국제회관 4층 대회의실 참가 무료!

일본어를 학습 중인 외국인 학생과 일본인 불란티어가 일본어로 재미있게 대화를 나눌 좋은 기회입니다. 상기 시간 내는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기다리겠습니다!!

9~10월 후쿠오카시 국제교류재단의 외국인을 위한 무료상담 일정

상 담 명	법률상담 (첫째 토요일, 셋째 수요일)	행정서사상담 (매월 둘째 일요일)	심리 카운슬링
상담내용	일반민사, 노동, 교통사고 등 법률상의 문제	국적, 입국, 재류자격 등	생활상의 고민 등 심리상담
상 담 일	9월 1일, 19일 / 10월 6일, 17일	9월 9일 / 10월 14일	월요일 8:45~17:45 화요일 8:45~11:45 목요일 8:45~12:45
상담시간	첫째 주 토요일 10:30~13:30 셋째 주 수요일 13:00~16:00	13:00~16:00 (접수마감 15:30)	
예 약	필요	불필요	필요(※주)
사용언어	통역 섭외 가능 단, 사전 신청 필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 ※기타 언어의 경우 사전 문의 요망	일본어, 영어

(※주) 사정에 따라 휴무일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092-262-1799로 확인해 주십시오.

홍역에 주의하세요!

홍역은 예전부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잘 알려진 병입니다. 최근에는 발병 수가 적어져 어느새 무서운 병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키나와에서 홍역이 발생해 일본 본토에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질병'인 홍역의 대유행을 하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려할 정도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시해서는 안 된다,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인식은 폭 넓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홍역은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공중에 흩날리기 쉽고 감염력이 강해 마스크나 양치질을 해도 감염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방은 오로지 백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는 두 번의 백신주사를 맞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력이 있으며 대유행도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27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 성인세대는 백신 접종을 한 번만 했거나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예방접종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부모들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주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아이들이 현재 면역도 치료약도 없이 홍역의 대유행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입니다.

홍역도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어서 처음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합니다. 초기에 입안 볼쪽의 점막에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3~4일이 지나면 고열이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며 미세한 빨간 반점이 귀 뒤쪽, 목, 이마, 얼굴 전체, 몸에서 팔다리로 퍼집니다. 몸 전체가 검붉어지고 고열로 뜨거워진 환자는 초체해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중병환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소수이긴 하지만 폐렴이나 뇌염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있습니다.

가려고 하는 곳이 정부에서 홍역 발생 위험지역으로 발표한 곳일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항과 콘서트장에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연장에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환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신의 면역 여부는 어렸을 때 사용했던 모자건강수첩이 아직 남아 있으면 수첩의 예방접종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검사로 홍역 항체 여부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MR백신에는 불활성화된 살아있는 홍역 바이러스와 풍진 바이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면역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부에게는 접종할 수 없고 접종 후 2달 동안은 임신을 피해야 합니다. 백신에 풍진 바이러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 2, 30년 전, 백신에 대한 불신이 일본 전체에 퍼졌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어찌 된 까닭인지 예방접종의 방침을 잠시 변경해 버렸고 그 일이 지금의 혼란을 자초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니시야마 선생님
건강칼럼 3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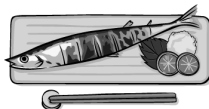
'○○의 가을'의 유래

일본에는 '○○의 가을'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결실의 가을, 식욕의 가을, 운동의 가을, 행락의 가을, 예술의 가을, 독서의 가을 등 여러 가지 가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르게 되었을까요?

일본은 예로부터 농업이 번성했기 때문에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농작물을 키우느라 바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 수확을 끝내면 바빴던 농사일이 일단락 되고 시간에 여유가 생겨 드디어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 가을'(○○하기에 최적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먼저 '결실의 가을'. 가을에는 쌀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가 수확되는 계절입니다. 이제 막 수확한 제철 먹거리는 맛이 있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식욕의 가을'이라는 말처럼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본능적으로 식욕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도 가을의 제철 음식을 마음껏 드셔 보세요.

일본에서 대표적인 가을 먹거리라면 '산마(산마:공치)'를 들 수 있습니다. 산마는 한자로 '秋刀魚'로 쓰는데 그 이름처럼 '칼'같은 모양이며 가을에 가장 맛있는 생선입니다. 공치는 소금구이로 해서 같은 무와 레몬을 곁들여 먹습니다. 또한 가을의 미



각왕으로 불리는 '송이버섯'은 향이 좋고 고급 음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은 '배', '감', '포도', '사과'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시기 과수원에서 과일따기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식재료인 밤, 고구마, 호박을 사용해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디저트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의 가을'은 원래 수확이 일단락된 가을에 운동회가 많았던 점과 1964년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시기가 10월이었던 점에서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선선하고 맑은 가을날에는 운동은 물론이고 등산과 단풍놀이 등 '행락의 가을'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가을은 음악과 미술에 관한 행사도 많아 '예술의 가을'로도 불립니다. 매사에 집중하기 쉬운 이 계절, 예술적인 취미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의 가을'. 이 말은 고대 중국의 문인인 한유(韓愈)의 시 '등화초가친(燈火稍可親)'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가을은 지내기 좋은 계절이므로 밤에는 등불을 켜고 독서를 하기에 가장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일본의 소설가인 나쓰메 소세키가 <산시로>라는 소설에서 인용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이미지가 알려졌다고 합니다. 독서는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가을에 딱 맞는 취미입니다.

가을은 무엇을 하든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가을을 보내시겠습니까?



음악의 가을 in 후쿠오카 후쿠오카 뮤직 먼스

후쿠오카의 가을은 음악 행사가 한가득! 매년 열리는 음악 행사가 올해는 9월의 주말에 집중적으로 개최됩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라이브도 개최되므로 music weekend 를 즐겨봅시다!

NAKASU JAZZ

9월 14일(금) · 15일(토)

장소 : 나카쓰 지역

<http://nakasujazz.net/>

‘나카쓰에는 재즈가 어울린다’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나카쓰 JAZZ’. 올해로 10주년을 맞습니다. 나카쓰 곳곳에서 재즈가 연주되는데, 2017년에는 이틀 동안 약 10만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빅 아티스트의 연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26th Sunset Live 2018

9월 1일(토) · 2일(일)

장소 : 후쿠오카 게야 해수욕장

<http://www.sunsetlive-info.com/>

후쿠오카 여름 끝자락의 풍물시라고도 할 수 있는 ‘Sunset Live’. 공연장인 게야 해수욕장에는 캠프장도 있어 이토시마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가합니다.

Kyushu Gospel Festival

9월 15일(토) ~ 16일(일)

장소 : JR하카타역 앞 광장

<http://fmfukuoka.co.jp/gospel/>

규슈 최대급의 가스펠 이벤트가 올해도 하카타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MUSIC CITY TENJIN 2018

9월 29일(토), 30일(일) 12:00 ~ 20:00

장소 : 후쿠오카시청 서쪽 후레아이 광장,

기타 덴진 각소의 특설공연장

<http://www.musiccitytenjin.com/>

※ 우천 시 진행, 악천후 시 중지

덴진 곳곳에 설치된 무대에서 장르를 초월한 프로와 아마추어 뮤지션들이 연주를 펼칩니다.

ACROS CLASSIC FESTA 10월 6일(토), 7일(일)

장소 : 아크로스 후쿠오카

<https://www.acros.or.jp/events/9526.html>

본격적인 오케스트라부터 패밀리 콘서트까지 클래식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틀간입니다.

10월 6일(토) 17시부터는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루트비히 챔버 플레이어즈의 연주를 1,000엔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7일(일) 15시부터 시작하는 심포닉 팝은 미취학 아동도 입장할 수 있고, 이웃집 토도로와 스타워즈 주제곡 등 아이들도 매우 친숙한 노래를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이 공연도 1,000엔이며 6일과 7일 통합권은 1,500엔입니다.

코스모스의 명소

가을을 대표하는 꽃 코스모스가 지금부터 제철을 맞게 됩니다. 후쿠오카 근교의 코스모스 명소를 소개합니다.

우미노나카미치 해변공원

계절마다 피는 꽃을 즐길 수 있는 우미노나카미치에서는 매년 9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우미나카 꽃 축제’가 개최됩니다. 진귀한 품종의 코스모스를 볼 수 있으며 넓은 부지에는 약 150만 그루의 코스모스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또한 10월 중순에는 새빨간 땀싸리, 10월 하순에는 가을 장미도 제철을 맞습니다. 렌탈 자전거로 공원 내를 한 바퀴 돌며 꽃들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쿠오카시 히가시구 사이토자키 18-25

노코노시마 섬

후쿠오카시 메이노하마의 노코선착장에서 약 10분, 노코노시마 아일랜드 파크는 후쿠오카현 안에서도 손꼽히는 코스모스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파란 바다와 제철 꽃을 보며 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화 시

기가 빠른 약 50만 그루의 코스모스와 개화 시기가 늦은 30만 그루의 코스모스를 10월 초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밭에 라이트업을 하는 기간도 있어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시 니시구 노코 1624

간제온지 절 앞

니시테쓰 ‘다자이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간제온지 절(觀世音寺) 앞에는 약 300만 그루의 코스모스밭이 있습니다. <겐지이야기>에도 등장하는 간제온지 절에는 약 1,300년 전에 주조된 가장 오래된 일본 국보인 범종도 있어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산책 삼아 자연과 역사를 느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린 비어 파크 후쿠오카

맥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린맥주 후쿠오카 공장의 옆 꽃밭에는 약 천만 그루의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며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 마다 3601

규슈국립박물관 특별전 ‘메이지 150년 기념 오쿠라 컬렉션’ 2018년 10월 2일(화)~12월 9일(일)

헤이안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일본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오쿠라 컬렉션’의 전시회입니다. 에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를 거쳐 활약한 대실업가 오쿠라 기하치로는 일본 및 동양의 고미술품을 수집해 1917년에 일본 최초의 사립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기하치로의 아들이자 호텔 오쿠라의 창업자로 유명한 기시치로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근대 일본화 등을 수집해 세계에 소개하는 등 일본문화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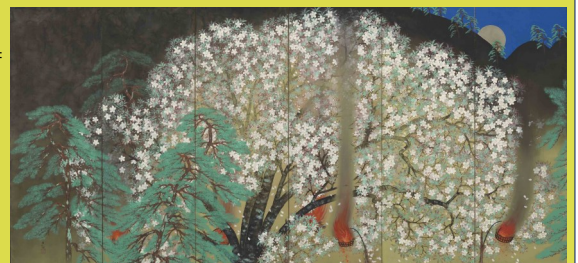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에서는 메이지유신 후 해외로 유출되었다가 되찾은 명품 등 약 100점(국보 3점, 중요문화재 10점, 중요미술품 16품을 포함)이 한자리에 공개됩니다.

휴관일: 매주 월요일 (단, 10월 8일(공휴일)은 개관. 10월 9일(화)은 휴관)

개관시간: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은 오후 8시까지 개관

관람료: 일반 1,500엔 고, 대학생 1,000엔 초, 중학생 600엔



<밤벚꽃> (원폭병풍) 요코야마 다이칸 (1929) 오쿠라 슈코칸 소장
전시기간: 11월 6일 ~ 12월 9일